

<서평>

스캇, 황혼녘에 산으로 날다.

James C. Scott. *The Art of Not Being Governed: An Anarchist History of Upland Southeast Asia*.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9.

이 상 국*

이번에는 산이었다. 그간 평지에서 농민을 주로 바라봤던 제임스 스캇(James Scott)이 인생의 황혼기에 그 눈길을 들어 소수종족들이 살아가고 있는 고원지대로 돌렸다. 그러나 생을 살아오며 치열하게 파고들던 “서발턴의 권력에 대한 저항”은 새로운 책에도 오롯이 담겨 있다.

사실 그가 산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이 책이 나오기 이전에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다. 2000년대 내내 스캇은 여러 학술회의에서 “왜 문명은 산을 오르지 못하는가(Why Civilizations Can't Climb Hills)”라는 제목으로 기조연설을 해왔기 때문이다. 동남아연구자들은 “스캇이 새로운 책을 준비하고 있다”라며 동료들과 더불어 기대감을 가지고 그 책을 기다렸고 그는 오랜 사색과 그 만큼의 머뭇거림을 거친 이후에 마침내 2009년 *The Art of Not Being Governed: An Anarchist History of Upland Southeast Asia*(이하 *The Art of Not Being Governed*)라는 제목의 저서를 세상에 내놓았다. 이 책이 나오자 학계의 반응은 뜨거웠다. 이번에는 정치학계나 인류학계뿐만 아니라 역사학계에서조차 이 책에 대한 찬사를 쏟아놓았다. 미국역사

*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HK조교수(skleeSEA@sogang.ac.kr).

학회는 2010년에 유서 깊은 “존 페어뱅크(John F. Fairbank) 상”을 그에게 수여하기까지 했다. 이외에도 그는 각종 학술단체에서 수여하는 상을 받으며 학자로서 행복하고 바쁜 인생의 황혼기를 보내고 있다.

이 책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면서 “조미아(Zomia)”라는 낯설어 보이는 이름도 따라서 유명해졌다. 마치 어느 익숙한 시에서처럼 스캇은 동남아 산을 “조미아”라 부름으로써 우리 모두에게 잊혀지지 않는 의미를 새겨넣었다. 사실 “조미아”는 그가 만든 용어가 아니다. 동남아시아와 남아시아의 국경지역을 연구하고 있는 네덜란드 학자 윌렘 반 쉐델(Willem van Schendel)이 이미 2002년에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학술지에 기고한 “Geographies of Knowing, Geographies of Ignorance: Jumping Scale in Southeast Asia”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그 용어를 주창했었다. 반 쉐델은 기존 지역연구의 중앙중심적이고 지역적 단위에 집착한 태도를 비판하며 변경지역과 초지역적인(transregional) 연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그는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중국남부에 걸쳐져 있는 산악지대에 대한 연구가 바로 기존 지역연구의 협소한 틀을 깨고 새로운 연구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이라 했다. 이렇게 동남아를 비롯해 주변 국가에 걸쳐져 있는 산악지대를 그는 “조미아”라 칭했는데, 이는 미얀마, 인도, 방글라데시가 맞닿아 있는 국경지역에 거주하는 소수종족들의 용어에서 “동떨어졌다”를 의미하는 “조(Zo)”와 사람을 의미하는 “미(Mi)”를 조합하여 만든 것이다. 스캇은 *The Art of Not Being Governed*에서 조금 축소되고 구체화된 형태로 “조미아”를 소개한다. 원래 반 쉐델의 “조미아” 범위는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에까지 뻗어나가는 산악지역을 포함시켰지만, 스캇은 동남아(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미얀마), 중국남부(운남, 귀주, 광서, 사천의 일부), 인도 동북부에 걸쳐있는 해발 300

미터 이상의 고원지대를 “조미아”라 했다. “조미아”의 외연과 고도에 대해서 아직까지 학자들 사이에 협의나 합의된 바가 없다. 폴 휘틀리(Paul Wheatley 1975: 251)의 유명한 표현인 “산스크리트 혀가 해발 500미터에서 굳어버린다”를 상기해볼 때, 그 고도를 좀 더 올려도 될 듯싶기도 하다. 아무튼 스캇은 “조미아”를 예사료이 보지 않는다. 그 넓이가 250만 km²에 이르고 150만 명가량의 소수종족들이 거주하고 있을 정도로 중요한 지리적 공간으로, 반 센텔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이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 지역연구에 새로운 기운을 불러일으킬 것이라 했다.

*The Art of Not Being Governed*에서 스캇은, 늘 그렇듯이, 간결하고 논쟁적인 주장을 펼치고, 때론 위태롭고 과도할 정도로 주장의 일반화를 시도한다. 그러나 방대한 증거들로 주장을 정당화하고 고혹적인 문체로 독자들을 “황홀경”에 빠뜨리며 비판의 날을 무디게 한다. 그가 이 책에서 핵심적으로 주장하는 바는 “조미아”가 국가의 지배로부터 벗어난/도망친 사람들의 “피난지(zone of refuge)” 또는 “탈주의 공간(shatter zone)”이라는 것이다. 스캇의 이러한 주장은 약자와 국가의 대립적 관계에 주목했던 그 자신의 학문적 궤에 맞닿아 있는 것이지만, 그도 인정하듯이, 선학들의 영향이 여기에 깊게 배어 있다. 스캇은 특히 남미에서 국가의 영향력을 벗어나려는 원주민을 다룬 *Society against State*(국가에 반하는 사회)를 지은 피에르 클라스트르(Pierre Clastres 1987)에게서 큰 영향을 받았다. 또한 초원 유목세력과 중국과의 관계를 다룬 오웬 라티모어(Owen Lattimore 1962)도 스캇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The Art of Not Being Governed*에서 라티모어의 관점이 짙게 배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스캇의 평지와 산악의 구분은 라티모어의 농경지대와 초원의 구분과, 스캇의 주류종족과 소수종족의 구분은 라티모어의 한족과 유목민의 구분과 각각 조응된다. 스캇은 또한 에드문드 리치(Edmund

Leach 1965)의 *Political Systems of Highland Burma*(버마고원의 정치체계)에서도 큰 영향을 받았다. 특히 스캇은 산악 소수종족 사회의 정치체계에 대한 논의에서 리치에 빚을 많이 지고 있다. 이 외에도 야만과 문명의 구분에 관하여 겔르너(Ernest Gellner 1969)의 아랍과 베르베르족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식민지 시기 미얀마 산악지대의 상황에서는 그와 동일 이름을 가진 식민지 관료인 제임스 스캇(1983)의 업적물(*Gazetteer of Upper Burma and the Shan States*)에게서 큰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선행 학자들의 아이디어들을 스캇은 창조적으로 섭렵하고 그 자신의 학문적인 사조와 연결시켜 “국가 밖의 공간(non-state place)”인 동남아 산악지대를 혁신적으로 바라본다.

*The Art of Not Being Governed*는 총 9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인 서론과 9장인 결론을 제외한 7개의 장들은 그 내용 구성을 보면, 스캇은 그런 구분을 하지 않았지만, 2부로 나눌 수 있다. 전반부(2장에서 4장)는 왜 사람들이 국가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가의 문제를 파헤치면서 동남아 국가의 강압적인 “국가만들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서술했다. 후반부(5장에서 8장은)는 국가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이 “조미아”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그들의 삶을 꾸려나가는가를 경제활동, 사회조직, 구술문화 등을 중심으로 풀어냈다.

스캇은 생산과 인구는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국가를 유지하는 핵심 요소인데, 동남아 국가들은 역사적으로 생산성이 높은 수경농작을 주요 생산 양식으로 택하고 이에 알맞은 경작지를 갖춘 큰 강(이라와디강, 짜오프라야강, 메콩강) 유역을 왕조의 핵심지역으로 삼으며 국가만들기 프로젝트를 시행했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생산활동에 종사할 노동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인적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는 절체절명의 일이었다고 한다. 이를 위해 동남아 국가들이 취한 전략은 영향권 내의 사람들을 최대한

착취하거나 그 밖의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오는 것이었다고 한다. 실제로 동남아 국가들 간에 전쟁 수행에서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가 노예 획득이었다는 것이다. 그렇게 인력을 확보하려했지만, 동남아 국가들은 늘 “넓은 땅, 부족한 인구”의 상황을 혁신적으로 타개하지 못하고 압제와 착취를 일삼았다고 한다. 이러한 국가의 강압적인 통치에 시달리고, 전쟁, 기근, 가난에 찌질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국가의 눈을 피해 멀리 다른 곳으로 도망가는 것인데, 그들의 유력한 도피처가 바로 산악고원지대 즉 “조미아”였다고 스캇은 주장한다.

이어서 스캇은 도망자들이 소수종족이 되어 산악지역에서 어떻게 살아가는데 주목한다. 그는 산악 소수종족들의 생계 방식, 사회구조, 문화양식 등은 최대한 국가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고 본다. 스캇은 이동식 경작방식인 화전농법이 그들이 국가의 눈을 피하기 위해 고안한 대표적인 생계방식이고, 카사바, 감자, 고구마 등의 뿌리채소들도 국가의 눈에 잘 띄지 않는 “도피 작물 (escape crop)”이라고 서술한다.

산악지역의 사회구조는 기본적으로 우두머리가 없는 사회의 특성을 보이고 작아질 대로 작아지는 분절적인 사회 형태를 가지는데, 이 역시 지배를 받지 않으려는 소수종족들의 의도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스캇은 본다. 가령, 에드문드 리치의 버마고원 까친족 사례에서 언급된 “굼라오(Gumlao)”는 우두머리가 없는 평등한 사회의 한 형태인데, 소수종족들의 지배거부 속성이 그 사회의 구성 원리에 깊이 반영되어 있다고 스캇은 해석한다.

스캇은 “조미아”의 소수종족들이 문자를 가지지 않는 것 또한 지배받지 않기 위한 전략이라고 본다. 문자를 가지면 증거가 남게 되고, 국가가 이를 통해 그들을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일부러 만들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그들의 문화와 전통을 입과 귀로만

전달했다는 것이다. 소수종족들의 유연한 정체성도 국가의 지배를 피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주장한다. 움직이는 정체성을 가져야 국가의 통제를 쉽게 빠져나갈 수 있다고 본다. 이렇듯 스캇은 소수종족들이 무문자 문화와 이동적인 정체성을 국가에 대응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선택한 것이라고 본다.

스캇은 마지막으로 산악 소수종족 지역에서 종종 발생하는 천년 왕국운동에 대해서 다룬다. 이 운동은 평지 국가를 모델로 삼고 평지의 주류종교인 불교의 미륵사상 등에서 영향을 받았지만, 기본적으로 평지 국가의 억압에서 해방되어 궁극적으로 새롭게 자기 존재를 구성하려는 움직임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렇게 그간 동남아 역사 전개에서 별 주목을 받지 못했던 산악지대가 “조미아”란 이름을 얻어 역동적인 공간으로 재탄생하고 소수종족이 역사의 주역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스캇의 공로에 의해서였다. 스캇은 중앙의 시각에서 쓰인 역사서술을 과감히 해체하고 변방의 관점에서 새롭게 역사를 구성한다. 그에 의해 패배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소수종족들의 국가로부터의 도망행위와 도피문화가 주동적이고 적극적인 삶의 전략으로 재해석된다.

그러나 몇 가지 점에서 스캇을 비판할 수 있겠다.¹⁾ 우선 이 책이 역사적인 책으로 간주되고, 미국역사학회에서 상까지 받았지만, 본격적인 역사서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일차적인 사료를 참조한 흔적이 이 책에서 거의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사료적 근거가 불충분해도 스캇은 과감하게 추정적인 주장을 한다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중국에서 동남아 “조미아”로 넘어왔다는 사람들에 관한 것이다. 19세기말 청조말기 중국의 혼란한 상황을 피해 몽족 등이 동남아의 산악지대로 넘어왔다는 것은 사료를 통해 명백히 알 수 있는 것이지만, 그 이전 시기에 대해

1) 자세한 비판은 리버만(Victor Lieberman 2000) 참조.

서는 자세히 밝혀주는 사료가 불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스캇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혼란을 피해 동남아의 “조미아”에 사람들이 이주했다는 주장을 펼친다. 아마도 스캇이 본격적인 역사가가 아니기에 사료에 크게 의존하지 않아도 그렇게 “담대한” 주장을 펼칠 수 있지 않나 싶다.

동남아 국가가 경제적 기반을 세워나갈 때 맨파워에 의존했다는 것은 *The Art of Not Being Governed*에서 스캇이 그의 주장을 펼쳐나가는 데 핵심적인 전제 조건이 된다. 이로 인해 강압적인 노동력 확보와 이를 벗어나려는 사람들의 도피가 자연스러운 결과처럼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남아의 국가들은 맨파워에만 의존하지 않았다. 미얀마에서 버강(Bagan) 왕조는 농업에 의존했지만, 버고(Bago) 왕조, 따웅우(Toungoo) 왕조는 해상무역에 큰 부분 의존했었고, 태국의 아유타야(Ayutthaya) 왕조 역시 해상무역에 의존했었다. 그리고 동남아 국가들이 사람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중심지에 사람이 너무 많이 밀집되어 있어서 오히려 큰 문제가 되기도 했다. 앙코르(Angkor) 왕국과 버강 왕조가 바로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면 맨파워의 부족으로 노동력을 착취했다는 스캇의 주장을 역사시대의 모든 동남아 국가에 적용하기에는 큰 무리가 따른다.

스캇이 산악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방식을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산악지대의 생태적인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겠다. 화전농법과 뿌리채소 위주의 경작방식은 정치적인 선택의 측면보다 산악지대의 생태환경에 적응한 결과라고 해석하는 것이 좀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싶다. 아무리 정치적인 선택으로 농작물을 선택해도 생태환경에 알맞지 않으면 재배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스캇은 소수종족들이 문자를 의도적으로 가지지 않았다고 하는

데, 이 역시 산악민의 전략보다는 문자를 창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과 수단이 없어서였다고 해석하는 것이 좀 더 설득력 있지 않을까 싶다. 이러한 조건이 갖춰진 상황에서 왜 굳이 소수종족들이 문자를 멀리 하겠는가. 동남아의 여러 소수종족들, 가령, 카렌족이나 까친족들은 서구 선교사들이 그러한 조건을 제공했을 때 기꺼이 문자를 가지면서 자신들의 정체성 형성의 도구로 활용하려 했다.

산악민들이 분절적인 사회조직을 가진 것도 지배받지 않으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스캇은 바라보고 있는데, 이는 산악민들 간의 갈등을 중재할 상위 기구가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쪼개지고 분리될 수밖에 없었다고 볼 수 있다. 국가든 다른 어떤 형태든, 강제적이든 민주적이든, 거버넌스를 실행해나가는 기구가 없는 “조미야”에서 흠스가 언급한 “만인대 만인의 투쟁”의 상태가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소수의 믿을 수 있는 사람들끼리 뭉쳐 살 수밖에 없기 마련이다. 스캇은 낭만적으로 산악민들의 자율성과 분절성을 언급했지만, 사실 그 자율성과 분절성에는 갈등과 불안, 초조함이 깊게 배어 있지 않았을까. 국가가 없다고 해서 과연 산악민들의 삶이 편안하고 행복했을까.

스캇은 비록 산악과 소수종족을 각각 주요 무대로, 주인공으로 내세웠지만, 산악과 평지를 이항대립적으로 바라보는 기존의 관점을 극복하지는 못했다. 오히려 그는 그 대립각을 날카롭게 세웠다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평지의 국가와 산악지대의 소수종족 간의 교류 및 네트워크는 그의 논의에서 주목을 받지 못한다. 실제로 산악의 소수종족들은 평지 국가들의 무역에 참여하며 협력적인 관계도 맺고 있었다. 국경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소수종족들은 중국과 인도 사이, 동남아 내륙부와 인도양 사이의 무역에 참여하며 평지의 국가 및 상인들과 교류했었다. 심지어 국가가 산악지역에서 노예사냥을 할 때, 국가와 협력하여 주변 소수종족 사람들을 팔아넘기기도 했다.

이러한 점은 스캇의 과도한 이항대립적인 틀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러한 비판점에도 불구하고 스캇이 이 책을 통해 동남아 연구와 학문의 나아갈 바에 던져주는 교훈은 크다. 스캇은 오래된 술을 새 부대에 담았다고 할 수 있다. 즉 고답적인 주제라 할 수 있는 산악과 소수종족을 “조미아”라는 개념과 초지역적인 틀로 새롭게 다룬 것이다. 그리하여 오래된 술이 새 부대에서 또 다른 숙성 과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맛을 내듯이, 고원지대와 소수종족은 스캇의 혁신적인 관점을 통해 역사의 무대에 당당한 주체로서 새롭게 등장했다. 그만큼 스캇이 제시한 새 틀은 전복적이면서 인간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전복적 인간성”은 그가 한편으로 부단히 학문 간·지역 간 경계를 넘나들며 기존의 사고 틀을 깨뜨리고, 다른 한편으로 늘 소설과 시를 가까이 두면서 보편적인 인간성에 대한 탐구를 고집스럽게 추구하면서 빚어낸 것이라 생각된다. *The Art of Not Being Governed*는 그 결정체라 할 수 있다.

끝으로 비교적인 관점에서 스캇의 논의를 우리나라에 적용시키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우리도 국가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의 공간이 존재했었다. 역사를 뒤돌아볼 때, 반란 세력, 신흥 종교 집단들이 종종 산악에 근거를 두었었다. 근현대사를 보더라도 빨치산들은 지리산 일대를 중심으로 해방구를 만들었다. 강원도를 중심으로는 화전농법이 행해지기도 했다. 그러나 동남아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공간과 삶의 방식이 오래 가지 못했다. 국가가 비교적 쉽게 산에 올라 국가에 반하는 세력들을 제압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러한 세력들이 추운 겨울에는 산에서 버틸 수가 없었다. 강한 국가와 추운 날씨는 우리나라에서 동남아와 같은 “조미아”가 형성되지 못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 않았나 싶다.

동남아와 한국의 “조미아”를 비교하고자 하는 의도는 이번에 서

강대 동아연구소(소장 신윤환)가 스캇을 초빙한 목적 중의 하나였다. 그를 비롯해 총 16명의 내외국인 학자 및 대학원생들은 2012년 5월 22-24일에 한국의 대표적인 “조미아”라 할 수 있는 강원도 일대를 현지답사 했다. 그리하여 “조미아”에 자리 잡으며 “글로벌”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민족사관고등학교를 방문하여 학생들과 직접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고, 정선 5일장에서는 산지나물 등을 직접 취식했으며 거대한 카지노로 탈바꿈한 사북의 탄광지역을 가보기도 했다. 국가가 “조미아”를 어떻게 파괴시키며 근대적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는지를 보기위해서 우리는 예전엔 화전민들의 거주지였으나 2018년 동계올림픽의 주무대지가 될 평창의 알펜시아를 방문하기도 했다. 답사 기간 내내 스캇은 “조미아” 풍경에 큰 관심을 가졌다. 각종 산지 나물을 흥미롭게 관찰했고,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조차 예사롭게 바라보지 않았다. 그가 연신 쏟아내는 질문에 대응하느라 고역을 치렀던 기억이 생생하다.

현지답사를 마치고 서강대 동아연구소는 5월 25-26일에 “동남아의 이동성(Southeast Asian on the Move)”이라는 제목으로 학술회의를 개최했는데, 스캇은 그 첫 일정에서 “Modes of State Evasion: ‘Shatter-zones’ of Primates (among whom homo sapiens), Plants and Animals”라는 제목으로 기조강연을 했다. 이 자리에서 스캇은 이번 현지답사가 아주 흥미로웠다고 언급하고 산지에서 채취하는 나물, 버섯 등이 가계의 주요 수입원이 되는 경우가 다른 나라의 “조미아”에서는 극히 드물다면서 이것이 한국적 “조미아”의 특성이 아닐까 하고 언급했다. 그러나 한국에서도 국가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이 “조미아”에 거주하고 국가의 눈을 피하는 경제활동이 거기에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그로서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예의 그렇듯이, 한국에서의 “조미아” 경험이 오랜 숙성 기간을 거쳐 스캇에게서 깊은 사유의 원천이 되길 기대해본다.

스캇은 황혼녘에 미네르바의 부엉이처럼 산으로 날았다. 그의 날갯짓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학문을 알리는 예언자적 신호이다. 우리도 그와 함께 “조미아”로 날아보자. 우리도 것처럼 고원의 “뮤즈”를 만나 그 만큼 지혜가 늘게 되리라.

〈참고문헌〉

- Clastres, Pierre. 1987. *Society against the State*. New York: Zone Books.
- Gellner, Ernest. 1969. *Saints of the Atlas*. London: Weidenfeld and Nicolson.
- Lattimore, Owen. 1962. *Studies in Frontier History: Collected Papers 1928-1958*. Paris: Mouton & Co.
- Leach, Edmund. 1965. *Political Systems of Highland Burma*. Boston: Beacon.
- Lieberman, Victor. 2010. “A Zone of Refuge in Southeast Asia? Reconceptualizing Interior Spaces.” *Journal of Global History* 5: 333-346.
- Scott, James C. 2009. *The Art of Not Being Governed: An Anarchist History of Upland Southeast Asia*.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Scott, James G. 1983. *Gazetteer of Upper Burma and the Shan states*. New York: AMS Press.
- van Schendel, Willem. 2002. “Geographies of Knowing, Geographies of Ignorance: Jumping Scale in Southeast Asia.”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20: 647-668.
- Wheatley, Paul. 1975. “Satyānrta in Suvarṇadvīpa: From Reciprocity to Redistribution in Ancient Southeast Asia.” Jeremy Sabloff and C. C.

324 동남아시아연구 22권 1호

Lamberg-Karlovsky eds. *Ancient Civilization and Trade*. pp. 227 -
283. Albuquerque: University of New Mexico Press.